

광주 전·현직 각축전... 다자구도·리턴매치 '주목'

18개 조합 49명 출마 2.7대 1 내달 7일까지 본격 선거운동 광주·서광주·남광주 농협 자산규모 1조 '빅3'에 관심

광주에서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총 49명의 후보가 18개 조합의 조합장 자리를 놓고 격돌을 펼친다.

지난 22일 오후 6시 전날인 21일부터 양일간 진행했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광주·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총 18개 조합 49명이 출마했으며 전남지역은 총 182개 조합 381명이 등록돼 총 200개의 조합장 자리를 두고 경쟁을 치른다.

경쟁률은 광주·전남이 각각 2.1:1로 나타났다. 선거운동은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가능하다.

광주 지역에서는 자산규모만 1조원이 넘는 이른바 '빅 3', 광주농협·서광주농협·남광주농협 3곳이 최대 관심 선거구로 꼽힌다. 일선 구청 등 기초자치단체 예산을 뛰어넘는 자산운용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조합장의 권한이 막강해 치열한 격전이 예상된다.

'빅 3'만큼이나 눈길을 끄는 격전지는 각각 5명의 후보가 출마한 동곡농협과 삼도농협이다. 현 조합장과 전 조합장, 임직원들의 격돌로 신·구 세력의 세대 교체가 이뤄질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광주농협은 한진섭 현 조합장에 김순택 전 농업경영인복지회장과 문완식 전 농협비상임감사가 경쟁한다. 지난 선거에 이어 재출마한 김순택 회장과 문완식 전 감사가 한진섭 현 조합장의 재선을 저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남광주농협은 정남석 전 남광주농협 이사, 이영종 전 조합장, 최중섭 전 조합장이 3파전을 벌인다. 남광주농협은 지난해 금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전 조합장이 사임했으며 이후 이사회가 내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과연 누가 '빅 3 농협'이라는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촌농협은 전봉식 현 조합장에 정정오 전 광주시건설본부과장, 이환형 전 감사, 전재근 전 수협중앙회 근무 경험이 있는 후보가 경쟁한다. 동곡농협은 광주권 최대 후보인 5명이 격돌한다. 전 11·12대 동곡농협 조합장을 거친 유상선 전 조합장과 유영권 전 감사, 이동운 현 조합장, 김성훈 전 동곡농협 이사와 강재천씨가 출마했다. 전·현직 조합장 간 격돌과 맞물린 다자구도는 선거 국면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

본량농협은 '1대1' 구도로 확정됐다. 눈길을 끄는 점은 본량농협 최초로 여성 조합장 후보가 출마했다는 것. 현 조합장

인 정상윤 조합장과 맞붙는 여성 후보는 전 전무를 지낸 이옥근 광주시 도시농업위원회 위원이다. 비아농협도 양강 구도다. 비아농협에서는 박흥식 현 조합장과 김하중 전 상임이사가 격돌을 벌인다. 지난 선거로 3선을 지낸 박흥식 현 조합장과 맞붙는 김하중 전 상임이사는 상임이사를 거치며 폭넓은 경험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삼도농협은 동곡농협과 마찬가지로 최대 후보인 5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인다. 오종선 현 조합장에 도전장을 내민 이들은 임문채 전 감사, 서두보 전 감사, 오항근 (주)헬스원 대표, 송영종 전 이사다. 오종선 현 조합장이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세대교체를 바라는 조합원들의 민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광주농협은 문병우 현 조합장, 강인택 광주미래농업연구소장과 오강기 전 조합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자산규모만 1조원이 넘는 대형 조합인 만큼 선거열기도 뜨겁다.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조합장 간 리턴매치와 더불어 강인택 후보의 신선히를 놓고 표심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창농협에서도 전·현직 조합장 간 치열한 3파전이 펼쳐진다. 김명열 현 조합장의 독주에 배인수, 서순철 전 조합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송정농협은 양강 구도다. 송정농협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차주철씨와 김형덕 현 조합장이 맞붙는다.

임곡농협의 임직원 간 격돌도 관련 포인트로 꼽힌다. 지난 선거에서 맞붙었던 기주호 전 조합장과 기재만 현 조합장, 기성중 전 이사가 3파전을 벌인다.

평동농협의 리턴매치도 눈길을 끈다. 지난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최삼규 전 이사가 김익찬 현 조합장의 독주를 막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됐던 하남농협 나왕수 현 조합장은 이번 선거에서 박상욱 전 감사와 격돌을 벌인다.

광주축협은 3파전을 벌인다. 김호상 현 조합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김형민 전 이사와 최정수 전 이사가 출마했다. 각각 젊은 축협과 풍부한 경험을 강조하고 나선 두 후보가 김호상 현 조합장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광주원에협은 방원혁 전 원에농협조합장, 정일기 현 전국공판장운영협의회 부회장, 김용문 전 원에농협 비상임감사가 3파전을 펼친다.

광주산림조합은 문선주 전 비상임이사와 박인중 무등산무돌길협의회 공동의장이 맞붙는다. 이밖에 북광주농협과 민물장어양식수협은 구상봉 현 조합장, 이성현 현 조합장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을 확정 지었다.

김은지 기자

광주지역 조합장 선거 출마자

광주농협 1 김순택(65) 전남도립대 총 전 농업경영인복지회장	남광주농협 1 정남석(67) 고구려대 총 전 남광주농협이사	대촌농협 2 이영종(68) 순천대 총 전 남광주농협 15대 조합장	3 최중섭(71) 송원대 총 전 남광주농협 12대 조합장
동곡농협 1 전봉식(77) 조선대 중퇴 현 대촌농협조합장	2 정정오(65) 광주대 총 전 광주시건설본부과장	3 이환형(67) 광주대 제학 전 대촌농협감사	4 전재근(73) 광주대 총 전 수협중앙회근무
본량농협 5 강재천(61) 조선대 총 전 순천여고교사	1 정상윤(65) 현 본량농협 조합장	2 이옥근(56) 호남대 대학원 박사 현 광주시 도시농업위원	북광주농협 구상봉(64) 전남대 석사 현 북광주농협 조합장
삼도농협 1 임문채(58) 전남기계고 총 전 삼도농협 감사	2 서두보(64) 전 삼도농협 감사	3 오종선(67) 한국방송대 졸업 현 삼도농협 조합장	4 오항근(61) 광주대 4년 재적 현 농업법인 (주)헬스원 대표
서창농협 3 문병우(57) 전남대 총 현 서창농협조합장	1 서순철(66) 광주대 석사 전 서창농협조합장	2 김명열(67) 광주농업고 총 현 서창농협조합장	3 배인수(66) 농협대학원 수료 전 서창농협조합장
평동농협 1 기주호(60) 한국방송대 총 전 임곡농협 조합장	2 기성중(65) 농협대 총 전 임곡농협 이사	3 기재만(57) 호남대 대학원 석사 현 임곡농협 조합장 2선	송정농협 1 차주철(56) 조선대 총 전 송정농협 근무
광주축협 1 김형민(38) 한국농업전문학교 총 전 광주축협 이사	2 최정수(67) 목포제일정보고 총 전 광주축협 이사	3 김호상(63) 조선대 총 현 광주축협 조합장	하남농협 1 박상욱(60) 조선대 4년 재적 전 하남농협 감사
광주원에협 1 방원혁(67) 방원대 총 전 원에농협조합장	2 정일기(59) 고려대 총 현 전국공판장운영협의회 부회장	3 김용문(61) 순천전문대 총 전 원에농협비상임감사	임곡농협 2 나왕수(66) 광주상고(현 동성고) 총 현 하남농협 조합장
민물장어양식수협 1 박인중(70) 구례농고 총 무등산무돌길협의회장	2 문선주(62) 조선대 제학 광주산림조합비상임이사	이성현(67) 목포과학교 총 현 민물장어양식수협조합장	광주산림조합 기호 이름(나이) 학력 경력

광주·전남 조합장 후보 60대 '최다'·여성 5명... 무투표 당선 54명

4곳 5대 1 최고 경쟁률 평균경쟁률 1.2회비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광주·전남 조합장 후보 중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후보는 5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54명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23일 광주·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지역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18개 조합 총 49명이 등록해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쟁률은 제1회 3.0대 1, 제2회 2.8대 1에 비해 낮았다. 조합별로는 농협 46명, 수협 1명, 산림조합 2명이 등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광주구 삼도농협과 동곡농협으로 각각 5명이 후보등록을 했다. 단일후보 등록에 따른 무

투표 조합은 민물장어양식수협과 북광주농협 2곳이다. 50세 미만 1명, 50대 10명, 60대 31명, 70세 이상이 7명이고 성별로는 남성 48명(98.96%), 여성 1명(2.04%)이 후보등록을 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도 182곳 조합에 총 381명이 등록해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쟁률은 제1회 2.4대 1, 제2회 2.4대

1 보다 낮았다. 조합별로는 농협 293명, 수협 41명, 산림조합 47명이 등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해남 산이농업협동조합과 여수 거문도수산협동조합으로 각 5명이 등록을 했고 단일후보 등록에 따른 무투표 조합은 52곳이다.

연령별로는 50세 미만이 11명, 50대 111명, 60대 233명, 70세 이상은 26명이며 성별로는 남성 377명(98.95%), 여성

4명(1.05%)이 등록했다.

각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등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infojh.nec.go.kr/web/main.do>)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이날부터 3월 7일까지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아래 선거운동방법 중 선출유형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